신성주/손성영 선교사 라트비아 선교서신(38)

(T) (+371) 2284-7834, 2743-8325 *sjspbm@gmail.com
Lielirbes iela 11-24, Riga, LV-1046, Latvia.
2021/09/24.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들, 추석 연휴는 잘 지내셨는지요?
코로나 상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 곳 라트비아 사람들은 판데믹에 점점 더 무디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모임들이나 각종 행사들이 조금씩 시도되고 있는 듯 해 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온도가 영상 6도 였는데, 날씨가 일찍 추워져서 사무실에는 벌써 난방 히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더 추워질려나 하는 긴장이 살짝되기도 합니다.

<몇 가지 나눌 소식들>

1) 지난 8/4-30까지 신 선교사는 막내 열국이(고1)를 대전의 TCIS로 전학시키기 위해 한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방문 기간 중에 복음병원에서 지난해 했던 안과 수술의 후속치료도 할 수 있었고, 몇몇 후원자님들과 동기 목사님들과의 만남, 대구동일, 수영교회 방문 그리고 진해중부교회에서 선교보고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 신 선교사는 KPM 유럽지중해지역부의 연구담당 코디인데, 지난 7월에 <언약적 팀사역으로의 초청> (Invitayion to the Covenant Team Ministry)이라는 글을 써서 <코람데오닷컴>에 실었습니다. KPM을 포함한 한국 선교의 가장 약점인 팀사역에 대한 연구로써, 교단과 한국교회 선교 종사자들에게 언약적 팀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시하였습니다.



3) 삼위일체교회에서는 지난 토,일(9/18-19) <라트비아 추수감사절> 전도행사를 하였는데, 감사와 복음초청기도 순서를 맡았고, 성도들과 함께 음식들을 준비하여 참석한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교회에 처음 온 새 가정들이 있어서 기쁜 날이었습니다.

4) 또, 지난 9/18(토)에는 라트비아 동부지역의 중심도시인 다우가필스(Daugavpils)를 방문하여 10/9일에 있을 동부지역 <목회자 리더십계발 세미나>의 준비 모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동부지역의 교회들은 다 영세하고 목회자들의 사역들이 터프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부부들을 초청하여(15가정) 목회리더십세미나와 사모세미나를 통해 격려하고 도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현지 목회자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준비되고 있으며, 예캅필스, 레제크네, 크라슬라바 등을 포함한 읍단위까지의 교회들을 초청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1〉 라트비아 교회에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라트비아 교회는 열심있는 평신도들이 안수집사가 되고, 안수집사님들은 보통 목사와 함께 주일 설교를 나누어서 합니다. 열심있는 안수집사님들 중에서 원하는 자는 교단의 목회자양성원에서 1년 과정의 신학 수업을 받은 후에 개 교회의 인정을 거쳐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각자의 생업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하에서의 전통으로 인하여 아직 교회들은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로 장립된 분들은 대부분 나름 경제력과 신앙을 두루 갖춘 분들입니다.

그들은 신앙과 영적 권위로 교회를 돌봅니다. 하지만, 신학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설교〉와 〈평신도 훈련〉입니다. 신학적 기반이 약한 목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주 설교하는 것은 너무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라 해도 한 달에 2회 이상 설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도들은 좋은 말씀을 듣고자 하나 현지 목회자들의 역량은 부족하여 그들을 훈련시키거나 성경교육을 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 선교사는 주일과 수요일에 각각 한 번씩 설교합니다. 신 선교사는 본문/강해 설교를 통해 설교자들에게 설교의 모델을 보여주고 또 평신도들에게는 말씀운동이 일어 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 선교사는 매월 1회 시골지역의 조그만 교회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일을 합니다. 저들에게 말씀의 씨앗들을 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기도2〉 10월 9일에 있을 라트비아 동부지역 〈목회자 리더십계발 세미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요.

오순절, 침례교, 루터란, 구세군, New Generation Ch. 등 초교파적인 목회자 세미나이며, 부부를 초청하여 오전에는 합반, 오후에는 두 반으로 나누어서 〈사모세미나〉를 겸하게 됩니다. 사모반 세미나 강사는 손성영 선교사입니다. 모두 영어로 강의하기에 언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3〉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어 〈셀리더 훈련〉과 〈QT세미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삼위일체 교회에서의 셀리더 훈련은 코로나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지만, 완화되면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라트비아에는 소그룹 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큐티 운동도 일어나야 합니다. 평신도들은 정교회처럼 교회와서 앉아 말씀듣고 갑니다만,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와야 할 것입니다.

〈기도4〉 저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저희 부부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늘 든든히 서서 사역하게 하시며, 현지인들에게 늘 모범이 되는 선교사의 삶이 되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한국으로 전학을 한 막내 열국이가 정체성을 찾고, 건강하게 공부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사랑하는 후원교회 및 후원자 여러분!
코로나 판데믹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후원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